

가치 체제의 최전선으로서 돌봄: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

정 용 택

(경희대학교 HK연구교수)

◆ 국문초록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성적 자본세는 단순히 자본주의가 지구적 규모로 확장된 시대가 아니라, 자본의 보편사(역사 1)와 인간·비인간 귀속의 정치가 구성하는 복수의 역사 2들이 서로의 서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갈등의 장이다. 둘째, 돌봄은 이러한 갈등의 장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충돌하는 지점, 즉 “가치 체제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자본의 가치법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무가치화되면서도 동시에 자본의 세계생태학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존재론적 토대를 구성한다. 셋째, 따라서 돌봄의 정치경제학은 단순히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윤리적 호소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치 체제 자체를 전환하고 새로운 행성적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문명사적 과제이다. 넷째, 이러한 과제는 마르크스주의가 자신의 사회존재론적 토대—인간과 자연의 생명 활동 조건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심—를 회복하고, “생산/노동”이라는 협의의 경제 범주를 넘어 돌봄·의존성·생명 유지를 중심에 두는 비판이론으로 재출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본 연구는 세 가지 학술적 기여를 목표로 한다. 첫째, 자본세 논의를 행성성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차크라바르티의 역사 2 개념을 경우

* 본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3.0(HK3.0)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5-S1A6B5-A02003693). 또한 저자는 이 논문의 초고를 2025년 11월 28일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많은 부분에서 수정·보완했다. 학술대회에서 유익한 논평을 통해 논문의 결점을 지적한 김강기명 박사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중요한 비평을 제기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미진한 지점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하여 돌봄의 이론적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탈식민 이론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종합을 시도한다. 둘째, 칼브의 가치 체제 개념을 돌봄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돌봄이 단순히 재생산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가치법칙과 도덕경제가 충돌하는 정치적 쟁점의 핵심임을 밝힌다. 셋째, 마우와 놀턴의 최근 작업을 경유하여 마르크스의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들을 재조명하고, 돌봄을 그러한 전제조건의 핵심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행성적 위기 시대에 대안적 사회형태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규범적 자원으로서 돌봄의 정치경제학을 정초하고자 한다.

주제어 : 행성적 자본세, 돌봄의 정치경제학, 가치 체제, 역사 2,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

1. 머리말

행성적 위기의 시대, 우리는 자본주의 문명이 인간·사회·생태계의 유지 조건 자체를 위협하는 전례 없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붕괴, 팬데믹의 반복, 돌봄 위기의 심화는 단지 개별적인 사회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축적 체제가 생명과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침식해 온 결과이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서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행성적 파국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행성적 자본세(planetary Capitalocene)”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을 제안한다. 여기서 자본세는 오늘날의 기후·생태 위기를 인류 일반 또는 인간 ‘종(種)’의 행위 결과로 환원하는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개념이다. 오늘날의 행성적 위기를 자본주의적 축적 체제가 1492년 이후 ‘세계생태학(world-ecology)’을 조직해 온 장기지속 구조의 귀결이라고 보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인류세의 대안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Moore, 2016).¹⁾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

히 인간 대신 자본이 문제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세 개념을 ‘행성성(planetary)’ 또는 “행성적 정치(planetary politics)”의 차원으로 확장·심화함으로써, 자본주의 비판과 행성적 위기 분석을 통합하는 이론적 지평을 열고자 한다(Moore 2019:49-54).

이러한 이론적 전환의 중심에 ‘돌봄(care)’이 위치한다. 본 연구는 돌봄을 자본주의 사회의 주변부적 기능이나 여성의 사적 역할로 축소하는 통념을 거부하고, 대신 돌봄을 마르크스가 암묵적으로 가정한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들(socio-ontological presuppositions)”의 한 축으로 재위치시킨다. 여기서 돌봄의 사회존재론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일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초역사적(transhistorical)’으로 사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말하는 ‘초역사성’은 자본의 역사의 ‘바깥’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이고 고정된 본질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늘날 대표적인 인류세 인문학자인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가 과거 서발턴 역사학자로서 『유럽을 지방화하기』에서 제시했던 논의에 기대어 말하자면, 그것은 자본이 자신의 보편사, 즉 ‘역사 1(History 1)’를 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호출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는 ‘역사 2들(History 2s)’의 층위, 곧 자본의 존재 구조 내부에 내재하면서도 그 ‘생애(life process)’에는 속하지 않는 과거들과 실천들의 시간성에 해당한다(차크라바르티 2014:121-165). 본 연구가 제안하는 돌봄의 초역사성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역사 2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돌봄은 자본의 역사(역사1)에 실재적으로 내재하면서도, 그 보편사적 서사를 끊임없이 중단시키는 역사2로서의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네 단

1) 무어를 비롯한 자본세 논자들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처음 확립된 1450~1640년에 이르는 ‘장기 16세기’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른바 ‘구대륙’과 ‘신대륙’이 본격적으로 조우한 1492년을 자본세 600년의 기점으로 본다. 이 해부터 일어난 사건들은 이후 유럽의 자본 축적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는데, 이른바 ‘신대륙’에서 착취하고 수탈한 풍부한 자원과 이윤이 유럽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무어 2020:292-293).

계로 구성된다. 첫째, 인류세/자본세 논쟁과 세계생태학 논의를 바탕으로, 자본세 개념을 행성적 스케일로 확장하는 이론적 토대를 정리한다(Ⅱ장). 이 과정에서 ‘지구적인 것(the Global)’과 ‘행성적인 것(the Planetary)’의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행성 정치가 탈정치화되지 않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한다. 둘째, 네덜란드의 마르크스주의 인류학자 돈 칼브(Don Kalb)가 제시한 ‘가치 체제(value regime)’ 개념을 통해, 자본 축적의 ‘가치법칙(law of value)’²⁾과 사회적 재생산·돌봄이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돌봄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를 모색한다(Ⅲ장). 이때 칼브의 가치 체제 개념과 차크라바르티의 역사 1과 역사 2의 구분이 어떻게 상응하는지를 밝힘으로써, 돌봄이 “가치 체제의 최전선”에서 역사 2로 기능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셋째, 최근의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적 정치경제학·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발전경제학의 돌봄 논의를 종합하여,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이 지시하는 의미·방향·전망을 제시한다(Ⅳ장).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암묵적으로 견지했던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에 관한 최근 논의—특히 쇠렌 마우(Søren Mau)와 케네스 놀턴(Kenneth Knowlton Jr.)의 작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돌봄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출발점을 재정식화한다(Ⅴ장).

2) 이 논문에서 가치법칙은 자본주의하에서 사회적 부(富)가 등가성(equivalence)과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이라는 시공간적으로 일반화된 사회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강제되는 과정, 즉 끊임없이 더 많은 가치를 증식하도록 하는 영토적·역사적 명령을 의미한다. 즉, 가치법칙은 단순한 부의 분배나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형태 및 사회관계를 지배하고 구조화하는 비물질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원리를 가리킨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가치에 대한 개념화는 Mann(2010)을 참조할 수 있다.

II. 자본세를 행성적 차원으로 확장하기

1. 인류세 담론을 넘어 행성적 자본세로

‘인류세(人類世)’라는 명명은 지질학·지구과학의 차원에서,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작동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된 시대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종종 ‘인류(Humanity)’라는 동질적 행위자를 상정함으로써, 누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행성적 위기를 만들어 왔는가라는 정치경제학적 질문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³⁾ 인류세 담론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이슨 무어(Jason W. Moore)는 오늘날의 기후·생태 위기를 ‘인류 일반’의 자연사적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축적 체제의 역사적 결과, 곧 “자본 생성적 위기(capitalogenic crisis)”로 규정하며, 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자본주의 역사 600년에 해당하는 ‘자본세(資本世)’를 제안한다(무어 2020: 273-308). 자본세는 자본주의가 인간과 자연, 사회와 생태의 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해 온 지구사(geohistory)의 시대적 지칭이다. 그러나 자본세 개념 역시 단순히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하는 수준에 머무를 경우, 인류세 담론의 한계를 충분히 넘어설 수 없다. 자본세가 오늘날 행성 위기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축적과 지구 시스템의 물질적 동역학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분석하는 ‘행성적(planetary)’ 시야가 필수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세 개념을 ‘행성성(planetaryity)’이라는 문제들과 결합하여 행성적 자본세로 그 지평을 확장 및 심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어의 세계생태학 프로젝트는 이러한 심화 작업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그의 접근은 자본세를 단순한 사회경제 분석을 넘어, 자본주

3) 인류세 개념의 난점과 자본세를 비롯한 대안적 개념에 대해서는 해러웨이(2015), 파텔·무어(2020), 말름·호른보리(2022), 채효정(202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의가 “생명의 그물(web of life)” 전체를 하나의 작업장으로 조직해 온 역사적 방식을 분석하는 틀로 이해한다(무어 2020:280-292).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1492년 이후 대서양 체계 형성과 함께 “식민지 정복과 원주민 학살”, “노예제와 플랜테이션 농업”, 그리고 “토지·숲·광물·노동·여성·비백인 인구에 대한 ‘저렴하게 만들기(cheapening)’”를 통해, 인종·성·계급·자연의 위계를 행성적 스케일에서 구조화해 왔다. 이때 ‘자연’은 단지 자본의 외부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행성적 노동·에너지·물질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세계생태학적 관점은 자본주의를 인간 사회 내부의 경제 체제로만 보는 협소한 시각을 넘어, 자본 축적이 어떻게 행성 전체의 생명 과정을 재조직하는지를 드러낸다(무어·파텔 2020).

한편, 해러웨이(Donna Haraway)가 제안한 다양한 ‘세(世, —cene)’들—인류세, 자본세, 툴루세(Chthulucene), 그리고 플랜테이션세(Plantationocene)—는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생태학의 폭력적 측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개념적 장치들이다(해러웨이 2015). 특히 해러웨이 자신이 새롭게 제기한 플랜테이션세 개념은 인종주의·식민주의·단작 농업을 결합한 “식민-자본주의적 생태 질서”가 오늘날 행성 위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플랜테이션 체제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자본주의적 세계생태학의 원형적 구조를 형성했다. 노예화된 신체, 단작화된 토지, 인종화된 노동 분업, 그리고 식민지와 메트로폴리탄 사이의 생태적·경제적 불평등은 모두 이 체제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의 글로벌 돌봄 사슬, 기후 불평등, 생태적 부채의 구조 속에서 변형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본세는 태생적으로 세계생태학적이며, 이미 행성적 구조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분석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본세를 행성성이라는 문제들과 결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행성적 자본세란 자본주의적 축적 체제가 인간·비인간·생태·기후·지

질을 포괄하는 행성적 생명 활동 조건을 조직·지배해 온 지구사적 체제로서, 그 구조적 모순이 오늘날 지구 시스템의 대규모 변형과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위기를 동시에 초래한 역사적 국면이다. 이러한 규정은 자본세가 단순히 경제적 축적 체제에 그치지 않고, 행성 전체의 생명 활동과 유지 조건을 재조직하는 총체적 체제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 체제의 구조적 모순—무한한 축적과 유한한 행성 사이의 모순, 가치 증식과 생명 유지 사이의 모순—이 오늘날 전례 없는 위기로 폭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2. 행성적 정치와 주체의 문제

스피박의 행성성 개념이 제시된 후 국제정치 이론에서 ‘행성 정치(planet politics)’ 의제가 종종 “지구가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식의 자연주의적·탈정치적 언어로 흐르며, 인간 주체의 정치성을 소거한다는 비판이 해당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Chandler, Cudworth & Hobden 2018). 행성 정치 개념이 지닌 일부 난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세 개념이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사회형태가 만들어낸 행성 위기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치적 언어임을 이제 누구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행성 정치의 기획이 탈정치화되지 않으려면, 행성적 자본세 개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지구 시스템의 ‘비인간적 행위성(non-human agency)’과 물질적 동역학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계급·인종·젠더 권력을 통해 그 행위성이 조직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요컨대, 행성적 자본세는 지구과학적 행성성과 정치경제적 행성성을 동시에 사유하는 개념이어야 하며, 바로 이 접합부에서 돌봄의 문제, 곧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이 등장한다.

물론 행성 정치의 기획이 탈정치화되지 않기 위해 ‘지구적인 것(the Global)’과 ‘행성적인 것(the Planetary)’을 동일시하는 통념 역시 깨뜨려

야 한다.⁴⁾ 지구성은 주로 자본이 세계시장, 국가, 기업, 국제기구를 매개로 자신의 축적 논리를 지구적 스케일에서 전개하는 방식, 차크라바르티의 용어로 다시 말하자면 자본이 스스로를 ‘보편적 역사’, 즉 역사 1로 서사화하는 차원을 가리킨다. 반면 행성성은 차크라바르티가 말하는 역사 2들—사회적 재생산과 돌봄, 식민지와 인종화된 공간, 생태계와 비인간 자연, 정치적 조건과 집합적 상상력 등—이 자본의 역사 1과 내밀하면서도 복수적인 관계를 맺는 장(場)을 포함한다.⁵⁾ 이러한 역사 2들은 자본의 가치법칙에 의해 끊임없이 포섭·동원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총체화하려는(totalizing)’ 충동을 중단시키고, 자본이 결코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다른 시간 코드와 세계-만들기의 방식을 유지한다(차크라바르티 2014:205).⁶⁾

-
- 4) 스피박에 의해 처음 제시된 행성성 개념을 통해 주어진 ‘지구적인 것’과 ‘행성적인 것’의 구별에 관한 문제의식은 이후 차크라바르티에 의해 더욱 정교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다. 행성성 개념의 기원과 특정한 방향으로의 정교화·양상에 대해서는 스피박(2008), 스피박(2017), 차크라바르티(2023), 차크라바르티(202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5) 차크라바르티는 마르크스를 면밀히 독해하며, 자본이 만나는 과거를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한다. 첫째, 역사 1은 자본이 스스로 설정한 선행조건으로서의 과거이다. 이는 자본의 논리적 전제들—예컨대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분리, 상품 생산관계의 일반화—이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역사 1은 자본의 생애에 속하며, 자본의 자기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복무한다. 흔히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나 근대화, 산업화 서사로 서술되는 것이 바로 이 역사 1이다. 둘째, 역사 2는 자본이 선행조건으로 만나지만, 자본 스스로 설정한 것이 아니며, 자본의 생애에 속하지 않는 과거이다. 차크라바르티는 놀랍게도 ‘화폐’와 ‘상품’을 역사 2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에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지만,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논리—예컨대 호혜, 의례, 지위 과시—로도 조직될 수 있었다. 자본은 이러한 역사 2의 요소들을 독립적 형태로서 파괴하고 자신에게 종속시켜야 하지만, 이 종속은 결코 성공적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이 글은 돌봄 역시 바로 이러한 역사 2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차크라바르티 2014:149-153).
- 6) 다른 대목에서 차크라바르티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 2들이 역사 1의 필연적인 논리에 대해 변증법적 [대문자] 타자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 2를 역사 1에 포섭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역사 2를 역사 1이 총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중단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범주라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Ibid., 155-156).

물론 이는 역사 2가 자본에 외재적이라거나 자본 이전의 순수한 ‘바깥(outside)’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차크라바르티가 데리다를 경유하여 “서발턴 역사”와 “자본의 역사”의 관계를 설명한 방식은 이 점을 명확히 한다. 그에 따르면, 서발턴 역사를 구성하는 역사 2는 “자본에 의해 창출된 서사 공간에 선행하거나 외재하는 저항을 지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 범주에 준거하지 않고서는 정의될 수 없다”(Ibid, 206). 이 때 그가 말하는 바깥은 역사주의적 산문에서 단순히 “자본 이전 또는 자본 이후”로 상상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자본 범주 자체와 결부된 어떤 것”이며, “시간성의 경계지대를 가로지르는 어떤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자본이 위반하는 시간 코드이지만 바로 이 코드 안에서 자본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코드에 부합하는” 것이며, “우리가 자본을 사유하고 이론화할 수 있어야 비로소 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자본과는 다른 시간성들과 세계 만들기의 형태들이 가능하며 공존한다는 점을 환기해주는 어떤 것”이다(Ibid, 206).

이러한 차크라바르티의 통찰을 돌봄과 자본의 관계에 적용하면, 돌봄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지니는 독특한 위상이 더욱 분명해진다.⁷⁾ 돌봄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고 자본주의가 아닌 방식으로도 조직될

7)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차크라바르티가 역사 2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화폐와 상품은 자본의 자기 이해가 이미 자신의 핵심 범주로 승인한 것들 안에서 발생하는 내적 균열이다. 앞서 언급했듯, 자본은 화폐와 상품을 자기 생애의 본질적 계기로 인식하지만, 바로 그 범주들이 자본주의 이전의 다른 논리—호혜, 의례, 지위 과시—로 조직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자본의 보편사를 내부로부터 교란한다. 반면 돌봄은 자본의 범주적 시야가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은폐해 온 영역, 즉 자본이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자신의 가치체계 안에서는 인정하기를 구조적으로 거부해 온 조건의 귀환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상학적 차이는 돌봄의 역사 2적 성격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욱 급진적으로 만든다. 화폐와 상품이 자본의 내적 범주 안에서 그 동질성을 균열시킨다면, 돌봄은 자본이 자기 서사의 바깥으로 추방했으면서도 결코 그것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가치법칙의 총체화 충동을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돌봄을 “가치 체제의 최전선”에 위치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중적 의미—자본에 의한 배제의 체계성과 자본에 대한 그 조건의 불가피성—때문이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본에 선행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자본의 시간 지평 안에 위치한다. 돌봄은 자본의 가치법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무가치화되고 저렴하게만 들어지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자본이 완전히 포섭할 수 없는 관계성, 상호의존성, 취약성의 윤리를 끊임없이 환기한다. 차크라바르티의 표현을 빌리면, 돌봄은 “자본의 시간 지평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면서 저 시간의 통일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것”이다(*Ibid*, 202-203). 마르크스가 제시한 구체노동과 추상노동 사이의 긴장을 감추지 않아야 상품과 화폐의 핵심에 이질성과 통약 불가능성이 기입되어 있음이 확실해지듯, 돌봄과 자본주의적 재생산 사이의 긴장을 감추지 않아야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가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모순적이고 불안정하며, 따라서 다른 방식의 조직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성적 자본세는 단순히 자본주의가 지구적 규모로 확장된 시대가 아니라, 자본의 보편사(역사 1)와 인간·비인간 귀속의 정치가 구성하는 복수의 역사 2들이 서로의 서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갈등의 장을 가리킨다. 행성적 자본세는 지구 시스템의 비인간적 행위성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계급·젠더·인종 권력이 얽혀 형성하는 세계생태학의 구조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 의존하는 돌봄·재생산·생명 유지의 실천들을 동시에 가시화하는 개념이다. 바로 이 접합부에서 돌봄의 문제—곧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가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 틀로 부상한다.

III. 가치 체제 안에서 돌봄의 위상

1. 가치 체제: 가치법칙과 생활세계의 교차점

마르크스주의 경제인류학자 칼브는 최근 작업에서 ‘가치 체제(regime

of value)’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 축적의 가치법칙과 구체적 집단들의 생활세계·욕구·도덕경제⁸⁾가 서로 교차·충돌·타협하는 장을 분석한다(Kalb 2024; Kalb 2025).

칼브는 가치 개념이 지나치게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라는 두 극단으로 나뉘어 논의되어 온 것을 비판하면서, 이 둘을 단순한 이항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변증법적 장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정리에 따르면 ‘가치(value)’는 최소 세 가지 상이한 층위를 갖는다. 첫째,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화/가치증식(valORIZATION)’의 차원, 즉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잉여가치로서의 가치다. 이는 경쟁·생산성·세계시장이라는 구조적 힘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자본이 가치법칙을 통해 노동·공간·자원·사회적 재생산 전반을 재조직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과 집단이 일상적인 사회적 재생산 활동 속에서 추구하는 생활세계적 ‘사용가치(USE VALUES)’의 차원이다. 이는 구체적인 집단의 욕구, 도덕경제, 생애 경로,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실천적 가치 지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스스로를 어떤 방향으로 형성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문명적·이상적 가치들’의 차원이다. 흔히 ‘보편성(universality)’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이것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이 종교·이념·문화·도덕·사회상 등의 장기적 지향을 포함하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상상력의 핵심을 이룬다.⁹⁾

8) ‘도덕경제(moral economy)’란 모든 경제 활동이 도덕적 성향과 규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구조화되는지, 그리고 이 규범들이 경제적 압력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한다. 시장 및 관련 경제 현상이 도덕적·윤리적 정서, 규범 및 행동에 어떻게 의존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윤리적 함의를 어떻게 가지는지 도덕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한 이론적 작업으로는 Sayer(2007)이 유용하며, 이를 오늘날의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활용한 연구로는 세이어(2024)를 참조할 수 있다.

9) 특히 세 번째 의미의 가치 개념에 관한 심도 있는 탐구는 독일의 사회이론가 요아스(Hans Joas)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강렬한 경험 속에서 생성되며, 이때 개인은 자신의 의지나 통제를 넘어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수동적 경험을 통해 특정 대상이나 이상에 깊이 정서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의 경험은 그 대상에 ‘성스

칼브가 제안하는 분석틀로서의 ‘가치 체제’는 바로 이 세 가지 가치가 얽혀 작동하는 시공간적 형세배열(configuration)을 지칭한다. 세 가지 의미의 가치는 결코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고 때로는 결탁(collusion)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 체제란 단순히 “경제구조”나 “문화적 가치관”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본 축적의 가치법칙이 특정 지역·계급·집단에 가하는 압력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도덕·관습·역사적 가치가 만들어내는 반(反)압력이 맞부딪히는 역동적 장이다. 가치 체제는 ‘가치(단수, value)’와 ‘가치들(복수, values)’의 변증법적 교차·응전·경합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상태이며, 그 안에서는 축적·사용·이념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끊임없이 상호구성적 관계를 형성한다.

나는 이러한 가치 체제의 틀 안에서 돌봄의 위상을 재규정하고자 한다. 돌봄은 일부 “돌봄 윤리”(Care Ethics) 이론가들이 강조하듯이 순수한 선의(benevolence)나 이상화된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 또는 가부장적 성 역할 모델에서 주로 가사노동처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여성적 활동’으로 왜곡 및 축소될 수도 없다. 오히려 돌봄은 가치 체제의 세 층위가 가장 급진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칼브가 “가치 체제의 최전선(frontlines of value regime)”이라 부르는 지점—에 자리하는 매우 복합적인 위상을 지닌 활동이다. 돌봄은 (1) 자본주의 축적 논리의 압박(저임금·무보상·사유화·상품화)을 받으면서도, (2) 생활세계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을 수행하고, 동시에 (3) 사회가 스스로 어떤 문명적·이상적 가치를 지향하려 하는지(연대·상호의존·보편적 돌봄)의 기준을 시험하는 장에 선다. 따라서 돌봄은 가치 체제의 주변부가 아니라 가치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

리움(sacredness)’이라는 특별한 질적 속성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가치는 주관적 자명성과 정서적 강렬함을 동반한 채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방향 짓는 힘으로 작용한다(Joas 2000). 요아스의 가치 이론에 관해서는 정용택(2025)가 참조.

내는 가장 민감한 분기점이며, 자본주의가 은폐하는 ‘가시적·비가시적 노동’과 ‘가치의 정치’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핵심 분석 단위가 된다.

칼브에 따르면 기존 논의는 대체로 양극단을 오갔다. 하나는 세계체제론이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접근처럼 세계적 축적 구조와 가치법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 다른 하나는 소비·취향·상징을 중심으로 한 문화연구처럼 구체적 가치·가치관(values)에만 주목하는 경향이다. 그는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 가치 체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자고 제안한다. 가치 체제란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이 특정 시공간에서 관철되는 방식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 축적된 다양한 이념적·역사적 가치들을 동원해 제기하는 욕망·도덕·반압력이 서로 뒤엉켜 구성하는 다층적 장”이다(Kalb 2024:15).

이 정의를 돌봄의 관점에서 다시 새기면, 가치 체제는 곧 “무엇이 가치 있는 일로, 무엇이 무가치한 일로 간주되는가”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투쟁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구조 안에서 돌봄(care) 또는 돌봄 활동(caring)은 가장 모순적인 방식으로 위치한다. 칼브의 가치 체제 개념은 이러한 점에서 차크라바르티의 역사 1과 역사 2의 구분과도 상응하는 측면을 갖는다. 자본 축적의 가치법칙은 마르크스가 ‘자본(capital)’이라는 철학·역사적 범주를 통해 사유한 보편사의 차원, 곧 역사 1의 형식이다. 반면 구체적 집단의 생활세계, 도덕경제, 문명적·이상적 가치,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돌봄의 실천들은 자본의 존재 구조에 내재하면서도 그 ‘생애’에 속하지 않는 역사 2들의 충위를 이룬다. 가치 체제는 바로 이 역사 1과 역사 2들이 충돌·교차하는 장이며, 돌봄은 그 최전선에서 가치법칙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가절하·저렴화 되면서도, 동시에 자본의 세계생태학이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돌봄은 가치 체제 안에서, 그리고 형성적 자본세의 조건 아래에서, 자본의 역사 1을 지탱하면서도 그 총체화의 충동을 끊임없이 중단시키는 역사 2로서 위치 지워질 수 있다.

2. 가치 체제에서 돌봄: 필수 인프라이자 무가치화의 대상

칼브의 논의를 확장하면 돌봄은 최소한 세 층위에서 동시에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돌봄은 자본 축적의 필수 전제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저렴하게 다루어지는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 활동이다. 돌봄은 노동력의 일상적 재생산, 세대 재생산, 공동체·가족·신체의 유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체적 활동과 관계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축적 과정은 돌봄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가치 체제는 이 인프라를 저임금·무임금·여성화·사유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무가치화(devaluation)’한다.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자 바이어(Friederike Beier)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적 축적 체제는 사회적 재생산 영역 전반에 대한 “전 지구적 인클로저(global enclosures)”를 통해, 돌봄을 더욱 불안정하고 상품화된 노동으로 만들면서도 그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Beier 2018).¹⁰⁾

이러한 돌봄의 위상은 자본주의적 ‘착취(exploitation)’와 ‘수탈(expropriation)’이라는 이중의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돌봄은 한편으로 유급 돌봄 노동의 형태로 자본의 가치법칙 내부에 편입되어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착취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무급 가사·양육·공동체 돌봄의 형태로 가치법칙의 외부에서 비용 없이 수탈된다. 돌봄이 가치 체제의 ‘최전선’에 위치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중성에 있다. 돌봄은 착취와 수탈의 경계선 위에서 양자를 동시에 경험하는 거의 유일한 활동 영역이며, 바로 그렇기에 자본의 가치법칙이 지

10) 바이어는 여성의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이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포함한 국제 정책에서 인정받게 된 현상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여성이 유급 노동력에 통합되도록 촉진하면서 노동력의 경제적 착취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돌봄 노동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야기하는 이중적 인클로저 과정으로 해석된다. 저자는 마르크스의 “시초 축적(primitive accumulation)” 개념으로 이러한 모순적 효과를 설명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계층과 인종에 따른 여성 간의 글로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닌 구조적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낸다.

한편, 돌봄은 아래로부터의 도덕경제와 반(反)헤게모니적 가치의 핵심 자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돌봄은, 노동자·여성·이주민·인종화된 집단이 제기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 주장의 중심 언어라 할 수 있다. 돌봄의 위기와 과부하를 경험하는 주체들은 임금·복지·서비스·시간 배분을 둘러싼 투쟁 속에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가”, “누가 누구를 위해 얼마나 돌봐야 하는가”를 묻고, 기존 가치 체제를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돌봄은 가치 체제 내부에서 자본의 가치법칙과 충돌하는 도덕·정치적 가치들의 응축점, 곧 새로운 가치 체제의 가능성을 여는 반헤게모니적 자원이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새로운 가치 체제의 규범적 기축으로 기능한다. 칼브는 단수형 ‘value(경제적 가치)’와 복수형 ‘가치들(values)’, 즉 규범·이상·필요·욕구·도덕·이념·정신 등을 변증법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alb 2025:55). 돌봄은 바로 이 복수형 ‘가치들’의 핵심 내용으로서 가치 체제의 규범적 재배열(reconfiguration)을 요구한다. 축적과 성장의 압력을 인간·사회·행성의 재생산과 합리적 기대의 충족이라는 기준에 재복속시키는 방향으로 가치 체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중심에 돌봄이 위치한다.

요컨대, 가치 체제 안에서 돌봄은 주변부적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가치법칙과 도덕경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전선에 자리 잡는다. 이 최전선이 바로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이 분석해야 할 핵심 공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전선의 공간은 개인·친밀한 관계에서부터 경제, 국가, 행성 스케일까지를 관통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의 『돌봄 선언』은 바로 이러한 다층적 스케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규범·정치 원리로 확장한다(더 케어 컬렉티브 2021). 이 선언은 돌봄을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self-care)”, “타인·가족·공동체에 대한 돌봄”, “사회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로서의 돌봄”, “지구·비인간 존재에 대한 돌봄(Earth-care)”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돌봄 중심 사회(caring society)”를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로 제시한다. 이때 “행성적 돌봄(planetary care)”은 곧 행성적 자본세가 파괴해 온 인간·비인간·행성 조건을 재생산하기 위한 다층적 가치 체제의 재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행성적 자본세는 자본 축적의 가치 체제이고, 이에 맞선 행성적 돌봄은 생명 활동의 가치 체제인 셈이다.

IV. 돌봄의 정치경제학: 최근 논의의 검토와 종합

이제 우리는 II장에서 정리한 행성적 자본세의 구조, III장에서 논의한 가치 체제 안에서 돌봄의 위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을 정식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10여 년 동안 학계에서 제출된 정치경제학적 돌봄 논의를 마르크스주의·페미니스트·발전경제학의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의미·방향·전망을 단계적으로 논급한다.

1.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돌봄 재발견

중국계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자 왕저(Zhe Wang)는 최근 논문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인본주의적 돌봄 정신(humanistic care spirit)”을 재검토하며, 마르크스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사회적 정의·해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포한다고 주장한다(Wang 2024).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은 사회 발전과 인간 발전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내적으로 결합된 과정으로 본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비판은 경제구조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억압·소외·비인간화된 삶의 조건에 대한 규범적 비판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과제는 생산력 발전을 넘어, 인간 삶의 질과 존엄, 사회적 연대, 자유

로운 개성의 발현을 중심 가치로 삼는 사회구조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는 곧 돌봄의 정치경제학이 단지 페미니즘이나 사회정책의 부가적 주제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의 심장부에 위치해야 함을 암시한다. 인본주의적 돌봄은 마르크스주의가 자신의 사회존재론적 토대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그러한 성찰과 평행하여, 페미니스트 경제학은 돌봄을 경제 분석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환경, 개발, 젠더 간의 관계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온 정치학자 하코트(Wendy Harcourt)는 “돌봄의 윤리와 정치”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COVID-19와 기후위기가 기존의 경제질서를 전면적으로 뒤흔들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돌봄의 경제적·생태적 중심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Harcourt 2023). 그녀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경제학은 오래전부터 돌봄 노동(특히 여성·이주민·인종화된 집단의 무급·저임금 돌봄 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를 재생산하는 토대임에도, 주류 경제학은 이를 자연적·생물학적 이타성으로 환원하거나, 아예 분석 대상에서 배제했음을 비판해 왔다.¹¹⁾ 따라서 하코트는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Feminist Political Ecology)의 시각을 통해, 돌봄을 사회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활동이자, 연대(solidarity)와 공동체 구축의 원리, 그리고 인간-자연-비인간 존재가 얽힌 “더-이상의-인간(more-than-human)” 관계를 조직하는 윤리로 재구성한다. 그녀에게서 돌봄의 정치경제학은 곧 “어떤 경제가 우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실천적 질문이며, 그 답은 “사회적 정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 집합적 안녕을 중심에 두는 ‘돌봄 기반 경제(care-based

11) 대표적으로 낸시 폴브레는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경제학』에서 주류 경제학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 노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을 체계적으로 무시해 왔다고 비판한다. 주류 경제학은 돌봄을 “사랑의 노동”으로 낭만화하거나 여성의 자연적 본성으로 환원함으로써, 돌봄이 시간·에너지·기회비용을 수반하는 경제적 활동이며 사회적 재생산의 필수 토대라는 사실을 은폐해 왔다. 폴브레의 작업은 돌봄을 경제 분석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돌봄 제공자(주로 여성)가 지불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가시화하려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선구적 시도로 평가된다(폴브레 2007).

economy)”로 수렴된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의 인본주의적 전통과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실천적 비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돌봄은 단순히 재분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를 재조직하는 원리로 부상한다.

2. 발전경제학과 글로벌 돌봄 사슬 비판

국제노동기구(ILO)의 돌봄경제 연구를 주도해 온 노동경제학자 숙티 다스굽타(Sukti Dasgupta)는 발전론적 관점에서 “돌봄의 정치경제학”을 모색한 논문에서, 돌봄이 가계, 사회, 경제의 기능에 근본적이며, 개인의 안녕과 노동력 및 경제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경제 분석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음을 지적한다(Dasgupta 2024). 그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돌봄은 경제의 외부가 아니라 핵심 부문이다. 돌봄은 노동력의 유지·발달, 인적 자본 형성, 사회적 응집력, 장기적 생산성에 기여하며, 따라서 돌봄경제는 구조 전환과 발전의 핵심축이다. 둘째, 돌봄경제는 고용 창출과 성평등에 결정적이다. 돌봄 부문에 대한 공공·사회적 투자는 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뿐 아니라, 여성 고용 확대,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 젠더 격차 완화를 동시에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학의 쟁점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비용으로 돌봄을 제공받는가”이다. 그런데 돌봄은 가계·시장·국가·시민사회가 함께 구성하는 “케어 다이아몬드(care diamond)”에서 조직되며, 이 다이아몬드의 구성 방식이 계급·젠더·인종·국가간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으로 대표되는 “역량 접근(Capability Approach)”에서 ‘발전(development)’이란 사람들의 ‘역량(capabilities)’을 확대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substantive freedom)”의 증진을 가리킨다(센 2013; 누스바움 2015). 이러한 의미의 발전이 지니는 가치를 인정한다면,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

경제학은—적어도 일정 수준의 경제 개발이 필요한 남반구(Global South)에서는—단지 “돌봄을 더 잘 대우하자”는 윤리적 호소에 그쳐선 안 되고, 과감하게 발전 전략의 토대를 돌봄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는 정치경제학적 요구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론적 전망은 현실의 글로벌 돌봄 체계가 심각한 불평등 구조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돌봄경제를 연구하는 사회정책학자 예이츠(Nicola Yeates)는 2000년대 초부터 글로벌 돌봄 사슬(GCC, Global Care Chains) 분석을 통해, 전 지구적 돌봄 분업의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 왔다(Yeates 2005). 북반구(Global North)의 중산층 가계는 돌봄을 ‘외주화(outsourcing)’하면서, 남반구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메운다. 이 과정에서, 북반구는 돌봄 부족(care deficit)을 값싼 이주 돌봄노동으로 보전하고, 남반구의 가정과 공동체는 자신들의 돌봄 부족과 가족 해체라는 대가를 치른다. 앞서 소개한 바이어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재생산의 전 지구적 인클로저로 규정하며, 신자유주의적 축적 체제가 돌봄·사회적 재생산 영역 전반을 새로운 축적의 장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그 비용과 위험을 주변화된 집단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Beier 2018).

이상의 분석들은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자본세 연구가 탄소·기후·자원 같은 기존의 익숙한 문제를 다루는 수준을 넘어 돌봄·사회적 재생산·이주·젠더·인종의 문제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는 행성적 구조 차원의 연구로 확장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은 글로벌 돌봄 사슬의 해체와 재구성을 포함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

3. 돌봄의 정치경제학의 의미·방향·전망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돌봄을 행성적 인프라

로 재규정하는 것이 핵심적 의미를 갖는다. 돌봄은 더 이상 복지정책의 한 부문이나 가정 내부의 사적 책임이 아니라, 인간·사회·행성의 재생산을 연결하는 행성적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념적 재규정에 그치지 않고, 돌봄을 중심에 둔 새로운 사회 조직 원리를 요청한다. 따라서 돌봄의 정치경제학은 기후·노동·복지·이주·젠더·인종 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행성적 사회계약(planetary social contract)”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사회계약은 자본의 무한 축적 논리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을 인정하는 윤리를 토대로 한다. 기후 정책이 돌봄 정책과 분리될 수 없고, 이주 정책이 젠더 정의와 분리될 수 없듯이, 행성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정책은 돌봄이라는 공통의 지평 위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재규정이 지향하는 방향은 돌봄의 탈가족화·탈사유화·공공화이다. 현재의 지배적 체제는 돌봄을 개인 가정과 여성의 자연적 책임으로 떠넘기거나,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도록 만들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 억압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공공·사회적 인프라로 전환하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집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나아가 지구·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행성적 돌봄으로 확장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돌봄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인간 중심에서 행성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가 제안한 “돌봄 중심 사회(caring society)”는 바로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한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셋째, 이러한 의미와 방향이 지시하는 전망은 가치 체제의 전환과 마르크스주의의 존재론적 재출발이다. 돈 칼브의 가치 체제 분석과 결합할 때, 돌봄의 정치경제학은 단지 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어떤 가치 체제가 지배적인가”를 둘러싼 문명적 전환의 요구가 된다. 현재 자본의 가치법칙이 지배하는 체제에서는 축적과 성장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돌봄은 그 수단이거나 장애물로 취급된다. 그러나 돌봄을 중심에 두

는 새로운 가치 체제에서는 축적과 성장의 압력이 인간·사회·행성의 생명 활동과 “살 만한 삶”을 향한 합리적 기대의 충족이라는 기준에 복속된다(버틀러·보름스, 2024). 이러한 전환은 마르크스주의가 자신의 사회존재론적 토대—인간과 자연의 재생산 조건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심—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오늘날 “행성(적) 정치”라는 용어는 종종 기후·생태계의 물질적 조건을 중심에 두는 자연주의적 접근으로 수렴하며, 자본주의 축적 체제가 만들어온 불평등한 행성적 구조를 충분히 정치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자연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여러 논의가 지구와 인간의 상호 얽힘을 새롭게 조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성 위기를 생산해온 계급·젠더·인종·제국주의적 권력 구조는 부차적 문제로 밀려나기 쉽다. 따라서 행성 정치가 탈정치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가치 체제가 어떻게 행성 규모의 재생산 조건을 조직·배제·전유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행성적 자본세라는 문제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의 물질성에 대한 감각과 구조적 폭력에 대한 사회비판을 결합할 수 있는 희소한 이론적 통로를 제공한다. 돌봄의 정치경제학 역시 이러한 구조 비판 없이는 곧장 윤리적 호소나 미시정치학으로 환원될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돌봄을 단지 사회정책의 한 부문이나 여성의 사적 역할로 취급해 온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역시, 자본주의 분석의 사회존재론적 토대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행성적 자본세의 위기는 이러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는 돌봄·재생산·생태계라는 보편적 삶의 조건을 체계적으로 파괴해 왔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는 더 이상 ‘생산/노동’이라는 협의의 경제 범주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돌봄은 생산의 부차적 영역이 아니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그 자체이며, 자본주의에 의해 가장 가혹하게 왜곡되고 착취되어 온 영역이다. 돌봄을 중심으로 가치 체제

와 사회계약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곧 마르크스주의의 존재론적 토대를 재정식화하는 일이자 행성적 위기 시대에 대안적 사회형태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적·전략적 자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돌봄의 정치경제학은 마르크스주의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 속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

V. 결론: 돌봄의 사회존재론적 복권

덴마크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쇠렌 마우(Søren Mau)는 경제적 권력으로서 자본의 논리와 운동을 탐구한 『무언의 강제』(*Mute Compulsion*, 2023)에서, 자본주의적 축적 체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Mau 2023:13-14).¹²⁾ 마우는 그 예로 인간이 일정한 길이의 자연적 노동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 필요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잉여노동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나는 이에 또 다른 전제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노동력은 다른 상품과 달리 인간의 살아 있는 신체에 체현된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이러한 분리 불가능성은 곧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생산·유지·갱신이 먹이고, 씻기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구

12) 마우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비판을 전개할 때 두 종류의 전제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들, 즉 모든 사회형태에 공통적인 인간·자연·사회에 관한 사실들이다. 예컨대 인간은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자연적 노동일 길이’),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재생산에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잉여 생산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회형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일반의 존재론적 조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전제, 곧 상품형식의 일반화라는 자본주의 고유의 구조적 사실이다. 마우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바로 이 두 전제—보편적 사회존재론과 특수한 역사적 구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함으로써, 그는 자본주의의 핵심 범주들(가치, 잉여가치, 축적, 소외 등)을 구축한다.

체적 돌봄 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자본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하지만, 그 상품을 매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하는 돌봄 과정 자체를 직접 생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자본이 창출할 수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전유해야만 하는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적 핵심이다.

물론 결정적으로 여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이 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인간 존재가 자신의 노동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부정적 역량, 즉 “노동이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역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¹⁴⁾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제들이 자본주의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들은 자본이 자신의 운동을 위해 전유하고 재구성하지만, 동시에 그 위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더욱 심층적인 인간 삶의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들”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들이 이미 마르크스 자신의 텍스트들 속에서 일종의 “초역사적 가정들(transhistorical assumptions)”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우와 유사하게 케네스 놀턴(Kenneth Knowlton Jr.)도 지적하듯,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단지 자본주

13) 자본주의가 돌봄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재생산 활동을 ‘추출(extraction)’함으로써 생산과 축적의 가능성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프레이저(2023), 특히 제3장 “돌봄 폭식: 생산과 재생산, 젠더화된 위기 — 왜 사회적 재생산이 자본주의 위기의 중심 무대인가”(113-148)를 참조할 수 있다.

14) “노동이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왜 인간 노동만이 가치의 실체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조지 카펜치스(George Caffentzis)가 지적하듯이, “기계들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노동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노동의 가치 창출 능력은 그것의 부정적 역량, 즉 노동이기를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의 능력 속에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로봇이나 AI와 달리 노동을 수행하도록 끊임없이 강제되거나 설득당해야만 한다. 이러한 노동의 자기부정성, 즉 노동력-상품으로 변형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인간 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는 동시에 “자본에 한계를 부과하는 것의 표징”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는 바로 이 부정적 역량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재생산된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 창출 능력은 노동의 긍정적 생산성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성찰적 부정성, 곧 거부와 저항의 가능성에서 일차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카펜치스 2018:265).

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비판이 가능하기 위해 전제해야 하는 인간의 능력과 세계-관계에 관한 일정한 존재론적 가정들에 의존한다(Knowlton Jr. 2025). 놀턴은 모이세 포스톤(Moishe Postone) 같은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이 마르크스의 범주들에서 모든 초역사적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역사적 특수성만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결국 마르크스의 비판이 갖는 인식론적·존재론적 깊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cf. Postone 2003).¹⁵⁾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한편으로는 가치형태와 자본의 총체성이라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 형태를 분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보다 근원적인 관계—노동, 자연의 변형, 상호의존, 자기 부정의 역량 등—에 관한 초역사적 전제들을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바로 이 이중성 덕분에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때의 초역사성은 결코 형이상학적·본질주의적 초역사성이 아니다. 차크라바르티의 용어를 빌리면, 마르크스가 전제하는 이러한 인간적 능력들은 모든 역사들을 자신의 것으로 총체화하려는 자본의 역사, 즉 보편사를 참칭하는 역사 1의 바깥에 있는 어떤 순수한 자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존재 구조에 내재하면서도 그 생애에 속하지 않는 역사 2에 해당한다. 역사 1은 자본의 축적 논리 자체가 만들어내는 보편사의 형식, 즉 가치형태와 추상노동, 세계시장과 국가 형성 등을 통해 전개되는 자본의 자기 서사이다. 반면 역사 2들은 노동자의 신체 습관, 무의식적 집단 실천, 가족과 공동체, 돌봄과 재생산, 식민지적 폭력과 그 잔존, 생태적·지질학적 시간성 등, 자본의 가치법칙과 세계생태학이 의존하면서도 완전히 동질화할 수 없는 과거들과 실천들의 집합이다. 차크라바르티가 강조하듯, 이러한 역사 2들을 단순히 역사 1에 포섭되는 전(前)자본주의적 잔재로 보는 것은 오히려 자본의

15) 노동과 가치, 상품과 화폐, 자본과 시간 등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형태들에 대한 범주적 비판으로 포스톤의 비판이론을 재구성한 작업으로는 정용택(2025나)를 참조할 수 있다.

총체화하려는 충동을 재현하는 셈이 된다. 오히려 역사 2들은 자본의 보편사를 끊임없이 중단시키는 범주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마르크스가 암묵적으로 전제한 인간 노동의 능력들—자연을 변형하고, 타자와 협동하며, 자신의 노동을 거부할 수도 있는 능력—은 자본의 역사 1을 가로지르는 역사 2적 초역사성으로 읽을 수 있다. 즉 그것들은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사회형태가 출현하기 전에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인간-세계 관계의 잠재력들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역사적 국면에서는 자본의 가치법칙이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호출하고 조직해야 하는 사회존재론적 전제조건들이다.

이 글이 제안하는 것은 돌봄을 바로 이러한 역사 2들에 속한 초역사성, 말 그대로 자본의 역사인 역사 1을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그런 ‘역사성’의 핵심적인 한 형태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돌봄은 인간이 서로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생명과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다양한 실천들의 집합을 가리킨다. 이 실천들은 자본의 축적 과정에 의해 끊임없이 갱신되어 만들어지고, 비가시화되며, 주변화되지만, 동시에 자본의 세계생태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회존재론적 토대를 구성한다. 돌봄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본의 역사 1이 스스로를 보편사로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해야 하면서도, 결코 그 서사 속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 역사 2들의 응축점이다.

따라서 돌봄을 사회존재론적 토대로 재해석하려는 기획은 그것을 자본세의 역사에 외재적인 어떤 순수한 도덕적 가치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크스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초역사적 가정들—인여 생산 능력, 상호의존성, 취약성, 노동의 자기부정성 등—을 차크라바르티가 말하는 역사 2들로서 재개념화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이때 돌봄의 초역사성은 자본의 역사 1에 대해 절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깊이 내재하면서도 그 논리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재구성하는 행성적 역사 2의 시간성을 가리킨다.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역사 1과 역사 2의 긴장 관계 속에서, 돌봄을 자본의 가치 체제를 넘어서는 사회적·정치적 변혁의 잠재력으로 사유하려는 시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돌봄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돌봄은 행성적인 것에 필수적인 사회존재론적 토대의 일부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쉬고, 치유되고, 관계 맺고, 돌봄을 주고받아야 한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회형태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존재론적 조건이다. 나아가 오늘날 인류는 지구·비인간 존재의 생명 유지 조건 역시 돌봄의 지평 안에서 사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자본세는 이 사회존재론적 토대를 관통·왜곡하는 특수한 역사적 구조이다. 자본주의는 상품 형식의 일반화를 통해, 돌봄과 사회·생태적 재생산을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값싸게 만들거나, 상품으로 편입하면서도 그 비용과 위험을 외부화한다. 행성적 자본세의 위기란 이러한 왜곡이 지구 시스템의 물질적 한계와 충돌하며 폭발하는 국면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주의적 돌봄의 정치경제학의 출발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돌봄과 사회적 재생산의 관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재생산은 노동력과 사회관계, 생태계가 세대를 넘어 지속되도록 하는 물질적·사회적 과정 전반을 가리키는 구조적 개념이다. 반면 돌봄은 그러한 재생산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체적 활동(먹이고, 씻기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돌보는 행위)이자,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을 인정하는 관계적 실천이며, 나아가 그러한 활동과 관계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묻는 윤리적·정치적 원리이다.

따라서 돌봄은 재생산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지만, 재생산이라는 기능적 범주로 환원될 수 없다. 돌봄의 정치경제학이 기존의 “사회적 재생산의 정치경제학”과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생산 개념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노동력과 사회를 유지·갱신하는가라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만, 돌봄 개념은 “그렇다면 그러한 재생

산 과정이 누구의 노동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가치 지향하에 이루어지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돌봄이 단순히 재생산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재생산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규범적·전략적 범주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돌봄의 정치경제학이 기존의 사회적 재생산론을 넘어서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그것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돌봄 활동을 가시화하고, 돌봄이 자본주의 가치 체제 안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무가치화·저렴화되는지를 폭로하며, 궁극적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가치 체제—재생산이 아니라 돌봄이 사회조직의 원리가 되는 체제—를 상상한다. 이런 의미에서 돌봄은 결코 생산에 비해 부차적인 ‘재-생산(re-production)’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 그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존재론적 토대이다. 이러한 출발점의 재확인 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적 돌봄의 정치경제학은 이중의 과제를 확립한다. 한편으로, 돌봄과 사회·생태적 재생산을 마르크스주의 분석의 사회존재론적 토대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이 토대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파괴·왜곡·착취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중의 과제 위에서, 우리는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행성적 자본세 시대의 돌봄의 정치경제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사회·행성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의 사회존재론적 필수성에 대한 인정을 출발점으로 삼고, 나아가 자본주의적 가치 체제가 이 조건을 조직·파괴·전유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가치 체제와 행성적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한 형태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규정 속에서 돌봄은 더 이상 노동이나 생산에 비하여 덜 중요하거나 덜 가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존재론적 기초이자, 행성적 위기 시대에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여는 규범적·전략적 범주이다. 이 글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바로 이러

한 기초 위에서 향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예컨대 현행의 “추출적 자본주의(extractive capitalism)”가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추출·고갈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한국 사회에서 돌봄 중심의 가치 체제 재편 방안, 그리고 역량 접근의 관점에서 돌봄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등—를 전개하기 위한 이론적 좌표 설정으로 제시되었다.

■ 참고문헌

- 누스바움, 마사 지음, 한상연 옮김(2015), 『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
는 무엇이 필요한가?』, 서울: 돌베개.
- 더 케어 컬렉티브 지음, 정소영 옮김(2021),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
치학』, 서울: 니케북스.
- 말름, 안드레아스·알프 호른보리 지음, 김용우 외 옮김(2022), 「인류의
지질학? 인류세 서사 비판」, 이별빛달빛 엮음, 『인류세와 기후위
기의 대가속』, 서울: 한울, 148-166.
- 무어, 제이슨 W. 지음, 김효진 옮김(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서울: 갈무리.
- 버틀러, 주디스·프레데리크 보름스 지음, 조현준 옮김(2024), 『살 말한
삶과 살 만하지 않은 삶』, 서울: 문학과지성사.
- 세이어, 앤드류 지음, 전강수 옮김(2024), 『블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
체』, 서울: 여문책.
- 센, 아마르티아 지음, 김원기 옮김(2013),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갈
라파고스.
- 스피박, 가야트리 지음, 문화이론연구회 옮김(2008), 「전지구성」, 『경계
선 넘기: 새로운 문학 연구의 모색』, 서울: 인간사랑, 141-190.
- 스피박, 가야트리, 태혜숙 옮김(2017), 「행성을 다시 상상하라는 명령」,
『지구화 시대의 미학교육』, 서울: 북코리아, 509-530.
- 정용택(2025가), 「민중의 자기초월과 민주적 가치의 생성—안병무와 한
스 요아스의 이론적 대화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205, 33-69.
- 정용택(2025나), 『모이세 포스톤, 시간과 노동 그리고 사회적 지배』, 서
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차크라바르티, 디페시 지음, 이신철 옮김(2023), 『행성 시대 역사의 기
후』, 서울: 에코리브르.
- 차크라바르티, 디페시 지음, 이신철 옮김(2024), 『하나의 행성, 서로 다

- 른 세계』, 서울: 에코리브르.
- 채효정(2022), 「은행을 접수하라: 금융세의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문화과학』 109, 128-151.
- 카펜치스, 조지 지음, 서창현 옮김(2018), 『피와 불의 문자들』, 서울: 갈무리.
- 파텔, 라즈 · 제이슨 무어 지음, 백우진 · 이경숙 옮김(2020),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자본주의에 숨겨진 위험한 역사, 자본세 600년』, 서울: 북돋움.
- 폴브레, 낸시 지음, 윤자영 옮김(2007),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경제학』, 서울: 또하나의문화.
- 플레이저, 낸시 지음, 장석준 옮김(2023),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파주: 서해문집.
- 해러웨이, 도나(2015),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툴루세」, 『문화과학』 97, 162-173.
- Beier, Friederike(2018), “Marxist Perspectives on the Global Enclosures of Social Reproduction,” *tripleC: Communication, Capitalism & Critique* 16(2), 546-561.
- Chandler, David, Erika Cudworth, and Stephen Hobden(2018), “Anthropocene, Capitalocene and Liberal Cosmopolitan IR: A Response to Burke et al.’s Planet Politic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6(2), 190-208.
- Dasgupta, Sukti(2024), “The Political Economy of Car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615-636.
- Harcourt, Wendy(2023), “The Ethics and Politics of Care: Reshaping Economic Thinking and Practice,”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17.
- Joas, Hans(2000), *The Genesis of Val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lb, Don(2024), “Introduction—Value at the End of the Cycle: On Frontlines and Regimes,” in *Insidious Capital: Frontlines of Value at the End of a Global Cycle*,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1-22.
- Kalb, Don(2025), *Value and Worthlessness: The Rise of the Populist Right and Other Disruptions in the Anthropology of Capitalism*,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 Knowlton Jr, Kenneth(2025), “A Critical Prolegomena. Value-Form & The Necessity of a Historical Subject,” *Bollettino Filosofico* 40, 114-129.
- Mann, Geoff(2010), “Value After Lehman,” *Historical Materialism* 18(4), 172-188.
- Mau, Søren(2023), *Mute Compulsion: A Theory of the Economic Power of Capital*, London: Verso.
- Moore, Jason W., ed.(2016),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Oakland, CA: PM Press.
- Moore, Jason W.(2019), “The Capitalocene and Planetary Justice,” *Maize* 6(1), 49-54.
- Postone, Moishe(2003),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yer, Andrew(2007). “Moral Economy as Critique,” *New Political Economy* 12(2), 261-270.
- Wang, Zhe(2024), “On the Humanistic Care Spirit of Marxism,” *Journal of Social Science Humanities and Literature* 7(2), 220-223.
- Yeates, Nicola(2005), “A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are,” *Social Policy and Society* 4(2), 227-234.

❖ ABSTRACT

Care as the Frontline of Value Regimes:
The Political Economy of Care in the Planetary
Capitalocene

Jeong, Yongtaek
Kyung Hee University

The main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lanetary Capitalocene is not merely an era in which capitalism has expanded to a global scale, but a field of conflict where Capital's universal history (History 1) and plural histories (History 2s), constituted by the politics of human and non-human attribution, constantly interrupt and disturb each other's narratives. Second, care is located at the most radical point of collision in this field of conflict, that is, the "frontline of value regimes." It constitutes the socio-ontological foundation upon which capital's world-ecology inevitably relies, even while being systematically devalued by the law of value. Third, therefore, the political economy of care is not simply an ethical appeal to recognize the value of care labor, but a civilizational task to transform the capitalist value regime itself and to seek a new planetary social contract. Fourth, this task requires Marxism to recover its socio-ontological foundation—a humanistic interest in the life activity conditions of humans and nature—and to restart as a critical theory that places care, dependency, and life maintenance at the center, moving beyond the narrow economic categories of "production/labor."

Through these arguments, this study aims to make three academic contributions. First, it attempts a new synthesis crossing Marxism, feminism,

and postcolonial theory by expanding the Capitalocene discussion to the dimension of planetarity and re-establishing the theoretical status of care via Dipesh Chakrabarty's concept of History 2. Second, by applying Don Kalb's concept of "value regime" to care studies, it reveals that care is not merely a sub-category of reproduction but the core of political issues where the law of value and moral economy collide. Third, it presents a new starting point for Marxist critical theory by re-illuminating Marx's socio-ontological presuppositions via the recent works of Søren Mau and Kenneth Knowlton Jr., and positioning care as the core of such presuppositions. Ultimately, this study intends to ground the political economy of care as a theoretical and normative resource that enables the imagination of alternative social forms in the era of planetary crisis.

Keywords: Planetary Capitalocene, Political Economy of Care, Value Regime, History 2, Socio-ontological Presupposition

■ 논문투고일 : 2026. 01. 04

■ 심사완료일 : 2026. 02. 02

■ 게재확정일 : 2026. 02. 09

